

해남-진도 마로해역 어업권 분쟁 재연

어장 면허기간 만료...진도군 "더 이상 양보 안돼"

해남어민 "40년 삶의 터전 상실 위기" 해상 시위

전국 최대 규모의 김양식 어장인 전남 해남과 진도사이 마로해역의 어업권 분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김 양식을 하고 있는 해남 어민들의 어장 면허기간이 만료되면서 수십년 삶의 터전을 진도군으로 넘겨줘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29일 해남군에 따르면 이날 해남지역 김양식 어민 250여 명은 150여 척의 어선을 동원해 마로해역에서 해상시위를 벌였다.

어민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지난 40여 년간 김 농사를 지은 마로해역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마로해역은 해남군 송지면과 진도군 고군면에 위치해 있다. 바다경계선을 기준으로 진도수역이 80%, 해남수역은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 곳은 해남 어민들이 지난

1982년부터 김 양식시설을 설치해 사용했으나 진도어민들이 진도해상임을 주장하며 갈등이 시작됐다.

급기야 무력충돌까지 이어졌던 갈등은 지난 1994년 일부를 해남어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됐다.

이후 정식 어업면허로 변경된 2000년에는 진도군수협이 면허권을 갖고 해남군수협이 행사계약을 통해 1370ha를 해남어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어업권 1차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2010년 진도군이 해남어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1370ha의 어장반환을 요구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분쟁은 김 양식장 1370ha는 해남어민들이 10년 연장해 2020년까지 사용하고, 진도군은 신규로 1370ha의 어업면허를 부여받는 것으로 종료됐다.



29일 오전 전남 해남군 송지면 마로해역에서 김양식 어민들이 어업권 보장을 요구하며 해상 행진을 벌이고 있다. (사진=해남군 제공)

문제는 2차례 걸친 어업권 유효기간이 올해 6월7일로 끝나면서 해남 어민들의 김양식장 시설을 철수해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또 다시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진도해역이고 지난해 전남도의 어장개발 승인도 난만큼 면허권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면서 "더 이상 마로해역의 어업권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해남지역 어민들은 지난 2010년 중재 당시 진도에 신규 어

업권이 부여된만큼 하단부 1370ha의 어업권은 해남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박성진 어촌계장은 "1994년 최초 합의 양 군이 사용하기로 한 것은 바다를 상·하단부로 나누어 영원이 사용하기로 한 것"이라며 "마로해역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174명의 어민들은 파산위기는 물론 수협 융자금 반환, 수백 척의 어선기능 상실 등으로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구조요청에 출동한 119구급대원 2명 폭행한 40대

스스로 구조요청을 해놓고 119구급대원 2명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0일 자신의 부상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2명을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일 "건물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며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신고를 접수하고 급히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다.

급기야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소방사 B씨의 얼굴을 때렸고, 구급차에서 내려서도 소방사 C씨의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주먹을 휘둘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손님 행세' 금은방 귀금속 절도 잇따라

금은방에서 손님 행세를 하며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범행이 잇따라, 경찰이 3명을 검거하고 도주한 1명을 쫓고 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9일 귀금속을 구매할 것처럼 속여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19)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8일 오후 3시15분께 광주 동구 한 금은방에서 60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금팔찌를 구매할 것처럼 속인 뒤 업주가 판매 장부를 기록하는 사이 팔찌를 들고 나와,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공범(22)의 차량을 타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A씨의 공범은 "A씨가 '볼 일을 보고 나올테니 20분만 차량에서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부탁을 들어줬을 뿐이다"라며 범행 가담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금은방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속 용의 차량을 추적해 차주인 공범을 붙잡은 데 이어, A씨도 검거했다.

제주 관광 20대 새벽시간 갯바위 고립

제주에서 새벽 시간 해안가 갯바위를 찾은 20대 관광객이 갑자기 불어난 바닷물에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9일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23분께 제주도 동남부 20대 갯바위에 사람이 고립돼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급히 현장으로 출동한 소방대원은 구조 튜브를 이용해 관광객 A(23·여)씨를 구조했다.

A씨는 갯바위까지 걸어갔다가 갑자기 차오른 바닷물에 고립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건강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60대 남성 이혼한 전 부인 살해 후 극단적 선택

60대 남성이 위자료 문제로 이혼한 전 부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전북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정읍시 감곡면의 한 야산에서 A씨(65)와 그의 전부인 50대 여성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A씨 자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조사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거쳐 야산에서 A씨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B씨 시신과 차 옆에서 A씨 시신이 각각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해 이혼한 뒤 최근 위자료 문제로 잦은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완도해경, 당사도 침수선박 발생 승선원 2명 전원구조

선박은 곧바로 침몰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27일 완도군 소안면 당사도 남서쪽에서 침수되어 침몰된 A선박(0.9톤, 보길선적, 양식장관리선, 선외기) 승선원 2명을 전원 구조 하겠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오전 11시 57분경 선장 A씨(남, 33세)가 배가 가라앉고 있다고 완도해경 상



황실로 신고 접수 하였으나 V-PASS상 위치가 표출되지않아 완도상황실에서 해로드엠 SOS요청 이용지시 후 선장과의 통화내용 신봉우 기자

비교, 당사도 남서쪽 인근 해상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완도해경은 경비정, 연안구조정, 구조대를 급파하여 신고 접수 20분만에 현장에 도착, 승선원 2명을 구조하였으나 A선박은 곧바로 침몰 하였다.

승선원 안전상태 이상 없으며, 해양오염 또한 발견되지 않아, B선박(크레인선, 9.7톤)을 침외하여 A선박 인양 후 보길도 중리항으로 이동조치 예정이며 자세한 사고 경위는 추후 조사 예정이다.

신봉우 기자

"3주만에 3번째 물난리" 광주 침수피해 주민들 '망연자실'



"3주만에 3번째 물난리를 겪네요. 속만 썩어 문드러져요."

29일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광주 북구 중흥3동 주민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1시간 동안

33.6mm~53.5mm가량의 폭우가 쏟아져 주택 17가구와 상가 5곳이 침수됐다.

물폭탄에 가까운 장대비는 4차례에 걸쳐 일부 주택의 방 안까지 들어왔다. 순식간에 집 안에 있던

생필품·식료품과 일부 가재도구가 젖었다.

간판집·공인중개사·식당 내부에는 성인 무릎 높이까지 빗물이 차올랐다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가전제품까지 쓸 수 없게 된 상인들은 발을 동동 굴렀다.

주변 재개발 공사장에서 흘러나온 토사와 섞인 물이 빠지지 않아 복구조차 엄두를 내지 못했다. 새로 구입한 제품이 또 물에 잠기기도 했다.

서선숙 기자

한 주민은 흙과 물때로 뒤범벅된 집기류와 가재도구를 마당으로 빼냈다. 한숨을 내쉬며 연신 고개를 가로저었다.

간판집 사장 최모(46)씨는 "지난 10일과 13일에 이은 3번째 물난리를 겪고 있다. 당분간 정상 영업하기는 어렵겠다"며 고개를 떨궜다.

주민들은 '이 일대 공동주택 재개발 공사 과정에 시공사 측이 (도로 개통 전) 임시 우수관만 설치해 뒀고, 복구청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침수 피해가 반복됐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제작
 문의 : junsol@junsol.com
 준솔루션